

국정과제회의

신뢰와 열정으로 갈등을 조절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의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합니다.

오늘 새로 위촉된 여러분(노사정 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서로 이해관계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조정하고 합의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직접 당사자로서 하는 일이 어려운데 남의 일을 조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컷 일 하고 욕먹는 게 주로 조정 역할입니다. 힘들게 일하고 뒤에 원망 듣는 일을 기꺼이 맡아준 데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 보니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절을 할 만한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갑니다. 여러분이 갈등 조절을 하겠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갈등이 있는데 잘 풀리지 않는 원인은 신뢰가 무너진 데 있습니다. 조절을 하는 데는 학식과 경험, 때로는 수완도 필요하지만 무엇이든 결국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 한분 한분이 그만큼 신뢰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열정도 있습니다. 신뢰와 열정을 가지고 풀지 못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대통령 되어 가지고 대화를 강조하면서 노동자 거드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를 외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섭섭함

도 있습니다.

합의는 곧바로 정책으로 실행되도록 할 것

이런 상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타협하는 문화가 성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결론이 나면 좋겠습니다.

5년 전 노사정위가 출범했을 때 제가 대통령이 임석하고, 적어도 한 달에 한번은 임석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그때보다 권위가 약해졌는데 스스로 낮춰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대통령의 객관적 여건이 그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노사정 관계되는 분은 대화의 장에 성실하게 나서주십시오. 저도 성의를 가지고 밀받침하고 분위기를 잡고 중용하겠습니다.

여기서 결정이 나면 정책에 실행되도록 챙기겠습니다. 혹 깜빡 잊고 정책에 반영이 안 되면 일깨워주십시오. 노사정위는 국민적 조정기관이니 보고는 꼭 챙기겠습니다. 노사정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이 진행되어 대화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사정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의)정책이 진행되고 신뢰에 맞지 않으면 차라리 그 주제를 노사정위의 토론 주제에서 배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화 계속하기 위해 그 정책은 방해 안 되도록 중간에 조율하겠습니다.

아무리 나쁜 화해도 훌륭한 재판보다 낫다

물론 결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노사정위가 국민적 합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기능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꺼

변에 어렵지만 여러분 노사정 위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주시시오.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과 결정이 국민적 설득을 하는데 스스로 절제하고 신뢰구축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노사정은 싸워서 나와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이 5년, 10년 후에 돌아볼 때도 그때 잘했다는, 양보해서 잘했다는 얘길 들어야 국민이 신뢰를 하고 그 정책이 힘을 갖고 성과를 낼 것입니다.

저는 약간 잘못된 선택이라도 선택의 참여자가 새로운 선택이라 보고 협조하면 좋은 일이 되고 그래서 좋은 선택이 되고, 반대로 그 과정에 참여한 측이 끝까지 고집해 새 출발을 못하고 계속 싸움을 하면 좋은 선택이라도 성과를 못 냅니다. 결정의 문화, 승복의 문화, 협력의 문화를 노사정위에서 만들어 국민들에게 알려줍시다.

제가 짧은 법조인 생활에서 들은 좋은 법언이 있는데 “아무리 나쁜 화해도 훌륭한 재판보다 낫다” 는 말입니다. 아마 화해가 이후에 갈등을 남기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법언이 새롭게 생각났습니다. 노사정이 합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